



알고계십니까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비편 휴가일수를 안내합니다.

2면

2005

제 호
173

6.30 목

뉴스통신진흥회 구성문제 진전

한나라당 이문호씨 추천, 국회의장도 박동영씨 내정

뉴스통신진흥법 제정후 2년 이상 표류해온 뉴스통신진흥회 구성 문제가 머지 않아 매듭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달초 이문호 전 연합뉴스 전무를 진흥회 이사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연합뉴스 노조에 통보해 온 데 이어 김원기 국회의장도 진흥회 후보로 박동영(朴東永) 전 KBS 해설위원장을 조만간 이사 후보로 추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도 서울시내 모 사립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원로 언론학자를 이 사후보로 추천할 방침이었으나 본인의 고사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정세균,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진흥회 이사 추천 문제를 조속히 매듭해 달라는 연합뉴스 노조의 요청 등에 따라 지난달말 회동, 국회 추천 몫 진흥회 이사 3명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장이 각각 1명씩 이사 후보를 추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청와대측은 국회가 추천권을 갖는 3명의 진흥회 이사들에 대한 추천이 조만간 완료되는 대로 신문협회 및 방송협회 측의 추천 인사를 포함, 총 5명의 진흥회 추천 인사들의 인적구성 등을 토대로 빠르면 7월말께 총 7명의 진흥회 이사를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노조는 5월 17일 1차 정재용 위원장 명의의 1차 성명에 이어 6월 15일 2차 성명을 내고 "국가기간통신사 발전에 기여할 인사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로 임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뉴스통신의 기능과 역할,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연합뉴스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유능한 인사들이 진흥회 이사로 추천돼야 한다"면서 "뉴스통신에 대한 기본적인 식견조차 갖추지 않거나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인사 또는 진흥회 이사를 개인 영달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려는 인사가 이사로 임명될 경우 연합뉴스 내부에 분란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연합뉴스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임금피크제 설문조사 7월5일부터 실시

지난해 노사합의한 '55세 이후 임금동결'

노조는 임금피크제와 관련, 오는 7월 5일부터 사흘간 조합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수차례의 집행부 회의 및 워크숍과 본사 및 각 지방 지사 대의원들을 통해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기초조사 결과 조합원 및 사원들은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사기 진작문제, 복지향상 토대 마련, 정년연장 여부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사측과 그동안 중단된 실무협상을 재개,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 정년연장 여부 문제, 임금인상율 적용 문제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해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어 노조는 실무협상 결과를 토대로 회사측과 노사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린 뒤 그 결과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노조 집행부가 회사측과 합의한

제1차 집행부 워크숍 경기도 양평에서 열려

"노조, 뉴미디어 투자에 감시.조언 역할해야"

노조 집행부는 지난 10일 1박2일간 일정으로 경기도 양평 대명콘도에서 금년도 제 1차 워크숍을 가졌다.

정재용 위원장은 워크숍에서 뉴스통신진흥회 관련 진행상황을 설명했으며, 집행부는 이를 토대

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한편 임금피크제 대응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논의했다.

이어 집행부는 회사 뉴미디어 전략기획위원회 TF팀원으로 활동중인 경영기획실 김태한 사우가 발제한 <뉴미디어 시장 변화와 연합뉴스 대응>을 주제로 2시간여에 걸쳐 토론을 벌였다.

정위원장은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노조 위원장으로 4개월 가까운 시간을 보내며 뉴스통신진흥회 구성 및 임금피크제 문제 등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면서 "연합뉴스가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뉴스시장에서 선두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회사의 뉴미디어 투자에 대한 감시 및 조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이번 워크숍에 의미를 부여했다. ■



지난 10일 열린 워크숍에서 토론을 마친 집행부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공동연구'의 구체적 내용은 1)적용대상을 55세 이상으로 하고 2)임금을 55세 수준에서 정년시까지 3년간 동결하며 3)임금피크제 실시에 앞서 조합원 총의를 묻는다는 것 등이다. ■

여름휴가 건강하게 알차게 다녀오시다

여름 휴가철입니다.

언론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조합원 여러분들은 그 어느 해보다 바쁘게 달려왔으며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은 녹록한 장마철과 바로 이어질 불볕 더위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유익한 여름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는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개인별 휴가일수 및 의무휴가 일수 등이 다소 조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면 참조)

조합에서는 여름휴가를 적극 독려하는 것은 물론 회사에서 복지차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콘도나 기타 편의시설이 성수기에는 지극히 부족하다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감안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임단협을 통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찬 여름휴가를 통해 사원 및 사원 가족 여러분의 재충전을 기대합니다.

노보만평

반종빈



바나

타사 기자

노설

특파원 충원계획 밝혀야 - 비영어권 적임자 발굴 정책도 필요

금년들어 몇차례 실시된 해외특파원 선발을 둘러싸고 사내에 이런저런 얘기가 흘러 다니고 있다.

“대다수 사원들은 한번도 못 나갔는데 누구는 몇 차례씩 나가느냐” “특정 부서 출신이 우대받는데 아니냐” “기피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 “갑자기 선발공고가 나는 바람에 준비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다”

물론 특파원 선발은 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를 뽑아도 항상 이견과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회사는 국가기간통신사 지정 이후 특파원 파견지역과 인원을 대폭 늘리기로 한 만큼 특파원 선발 및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는 노력에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한다.

첫째, 특파원 선발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특파원 파견지역



을 일정 수준까지 늘릴 필요는 있겠지만 예산이나 인력 측면에서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는 만큼 어느 지역에 특파원을 파견하는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뉴스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특파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최소한 1년에 한 차례씩이라도 그 해의 특파원 선발계획을 사원들에게 미리 알려 희망지역 언어학습 등 준비 기회를 줘야 한다. 이 경우 특파원 희망자들이 영어권 지역에 집중되고 비영어권 지역의 경우 지원자나 없어 선발하

지 못하는 폐단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셋째, 특파원 선발방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해당지역 언어 구사자가 부족한 러시아, 중남미를 비롯한 비영어권 지역 등의 경우 회사측이 ‘후보자’를 발굴, 특파원으로 내정된 뒤 언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가능한 많은 사원들에게 특파원 근무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혀야 한다. 연합뉴스 기자직 사원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특파원 근무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희망은 통신기자로서의 어려운 현실을 참고 견디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힘든 부서나 기피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원들에게 희망을 줘야 조직의 건강성이 유지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회사측이 검토중인 특파원 ‘현지교대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정 지역의 특파원이 임기 3년을 마치고 본사 귀임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지역의 특파원으로 부임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현지교대제’는 당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파원 희망자들이 많은 상태에서 “누구는 특파원용이고 누구는 국내용이냐”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국제뉴스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특파원으로 선출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동시에 ‘전문성’이 확실적인 기준이 돼선 안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특파원 파견인원과 대상이 늘어난 만큼 회사는 특파원 체재비 등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실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체재비의 경우 지역별 현실을 감안하되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특파원 자녀교육비 현실화 문제는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겠지만 타 언론사 특파원이나 정부 기관 주재원 등의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조합원 단상

‘연합’ 이 아닌 ‘연합뉴스’ 이름찾기

과연 우리 회사의 이름은 무엇일까? ‘연합통신’(?), ‘연합신문’(?). 가끔은 생방송 중인 브리핑 장에서도 ‘연합 질문하세요’ 등등.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부르는 이름 ‘연합’.

취재 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많은 선배들이 동감하고 있겠지만 취재원들이 우리 회사의 호칭을 제대로 부르는 경우는 많지 않다. 가끔 공보관이나 홍보 잘하는 기업의 담당자들, 그리고 인터넷 포털 뉴스 영향력에 힘입어 연합뉴스를 즐겨보는 네티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매체들이 우리를 그저 ‘연합’으로 부르는 일종의 ‘무신경’ 혹은 ‘무례함’을 보이고 있다.

백번 양보해도 호칭이 아닌 활자에서는 ‘연합뉴스’로 제대로 대접받아야 한다.

글로 출고된 기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연합’이라는 호칭의 편식이 사진의 경우에 특히 심한 편이다. 사진부에서 출고한 사진기사의 경우 ‘연합뉴스’라는 크레디트를 달아주는 곳은 ‘내일신문’, ‘세계일보’, ‘국제신문’ 등 단 세 곳. 그나마 돋보기가 필요할 정도의 작은 활자로...

일반 독자들에게는 언론사들이 ‘연합해서’ 취재한 기사 혹은 사진으로 볼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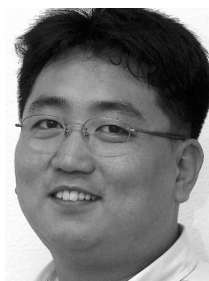
반면 ‘뉴스’의 경우 제이름에서나 활자크기에서

나 언제나 제대로 대접받고 있는 것을 볼 때, (면 편집시 자판 몇 번 더 누르는 수고를 얹아) ‘연합’으로 매체에 도배시킨 계약사들의 게으름을 확인할 때마다 ‘연합뉴스’의 구성원으로서 자존심이 이만저만 상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계약사들의 일방적인 회사 명칭 축소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냥 ‘연합뉴스로 해줘’라는 식의 부탁하는 정도의 강도 적은 저항을 했지만 회사 차원에서 우리의 이름 되살리기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었다.

날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국가기간통신사인 우리의 역할과 영역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는 이때 사업의 다각화만큼 시급한 것은 우리 참 이름 찾기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지식자산의 시대. 모든 기업들이 자신들의 무형자산을 보호하려고 뛰고 있는 시기에 우리도 ‘연합’이 아닌 ‘연합뉴스’라는 제이름을 요구할 때다. 그래야만 이 혼란한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당당히 뉴스의 강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



황광모 사진부

바뀐 휴가일수 안내합니다.

금년 1월부터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바뀐 근속연수별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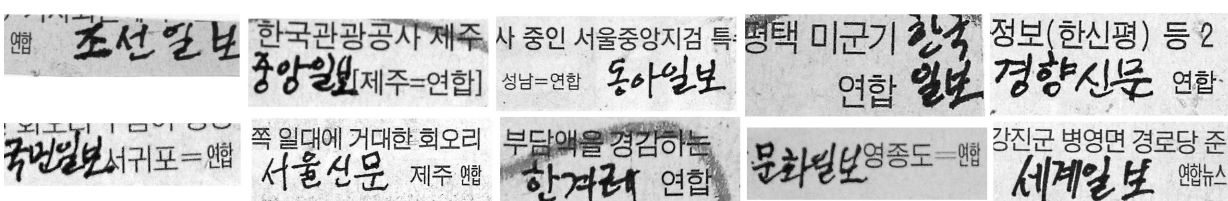
입사일	휴가일수
1985년 1월 1일 이전 입사자	25일
1985년 1월2일 ~ 1987년 1월1일	24일
1987년 1월2일 ~ 1989년 1월1일	23일
1989년 1월2일 ~ 1991년 1월1일	22일
1991년 1월2일 ~ 1993년 1월1일	21일
1993년 1월2일 ~ 1995년 1월1일	20일
1995년 1월2일 ~ 1997년 1월1일	19일
1997년 1월2일 ~ 1999년 1월1일	18일
1999년 1월2일 ~ 2001년 1월1일	17일
2001년 1월2일 ~ 2003년 1월1일	16일
2003년 1월2일 ~ 2005년 3월15일	15일
2005년 3월16일 ~ 2005년 3월27일	12일
3월28일 ~ 4월20일	11일
4월21일 ~ 5월14일	10일
5월15일 ~ 6월 8일	9일
6월 9일 ~ 7월 2일	8일



그리고 의무휴가일수는 7일입니다. 따라서 연간휴가가 20일인 사수가 5일의 휴가만 사용했을 경우 휴가 미사용분은 15일이 아니라 13일입니다. 따라서 최소 7일은 휴가를 내어야 연차수당 계산시 금전적인 손실이 없습니다.

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매년 1월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한편 토.일요일 근무시 발생하는 대체휴가의 경우 지난해부터 사용기간을 1주일에서 1개월로 확대했으니 1개월내에 여건이 되는 날 휴가를 내기 바랍니다. 휴가를 내지 않을 경우엔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



“인력충원에도 업무 체감도는 높아져” 체계적 인력충원 계획 수립·시행해야



“갈수록 새로운 일이 늘어나고 있어 근무강도는 열약해 지고 있다”, “공채 위주의 체계적인 인력 충원 계획이 필요하다”

최근 회사가 경력 및 신입 사원을 대거 채용하고 있으나 대다수 조합원들은 “업무강도가 약해지기는 커녕 근무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작부서의 한 조합원은 “기본 취재 및 기사작성 업무 이외에 ‘뉴스뒤뉴스’도 써야 하고 영상도 찍어야 하고 사진도 챙겨야 하는 등 업무강도가 이전에 비해 악화됐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또 다른 기자직 조합원은 “스트레이트 기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사는 매체환경의 변화를 내세우면서 동영상 등 부가서비스 강화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한 기자직 조합원은 “지방 기자들은 이미 기사도 쓰고 판촉도 하고 영상·사진도 찍고 있기 때문에 멀티플레이어의 역할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회사가 인력보충에 따른 추가성과를 기대하고 있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비제작부서의 한 조합원

도 “교대 인력의 부족 등으로 휴일에도 집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가세했다. 편집국 일부 부서의 조합원들은 주 5일근무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물론 회사측도 최근 상당수의 외부인력을 스카우트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의 인력충원이 대부분 멀티미디어본부, 전략사업본부 등 신규사업 분야에 치중돼 있는게 사실이다. 한 조합원은 “인력충원이 새로운 사업과 관련된 부서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기존 부서의 경우 일부 인력이 충원되도 새로운 업무분야가 추가돼 업무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기응변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인력충원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조합원들도 적지 않았다. 신규사업의 경우 가변성, 불확실성 때문에 필요인력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사업의 방향과 규모 등을 미리 결정한다면 이에따른 중장기적인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조직개편 이후 6월 말까지 기자직과 사무직을 포함해 총 26명이 새로 입사하는 등 사원 800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인력운용 방안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

신학림 위원장 등 본사 방문

신학림 위원장 등 전국언론노조 간부들은 지난 28일 오후 본사를 방문, 장영섭 사장을 면담, 언론노조가 추진중인 소속사들의 신문협회 탈퇴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호정 서울신문 노조 위원장, 이재희 신문개혁특위 위원장, 정재용 연합뉴스 위원장 등과 함께 장 사장을 면담한 신 위원장은 “신문협회가 신문업계의 발전에 힘을 쏟기는 커녕 소속사 사장단의 사고모임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사장은 “연합뉴스는 모든 신문, 방송사들이 고객인 만큼 주도적으로 신문협회 탈퇴 문제를 거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이달의 참글상

이달의 참글상에 격려상 1편 선정

공정정보위원회(간사 권정상)는 이달의 참글상(5월 송고분)에 사회부 김병조 조합원의 <‘강제철거’ 상도5동 달동네 폐허속 230여일>을 격려상으로 선정했다.

김조합원의 <‘강제철거’...>는 부동산개발에 밀려난 소외된 빈곤층들의 아픔을 현장에서 확인, 발로 뛰어 얻어낸 기사다.

한편 6월 송고분 이달의 참글상 후보작은 내달 6일까지 각 공보위원이나 노조로 제출하면 된다.



최전선에서

정치부 정당팀 신참 정치자의 24시 “밤낮없이 현장취재, 사회현상 분석에 보람”

강남경찰서 출입기자 명함을 반납하고 국회 여당팀 서열 7위(참고로 여당팀은 모두 8명)로 정치부 생활을 시작한 정모 기자. 지난해 10월 주변 동료들의 축은해하는(?) 환송 인사를 받으며 ‘팔자’러니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던 정 기자가 어느덧 정치부 생활 8개월째를 맞이하게 됐다. 노조원에게 정 기자의 24시를 공개하는게 멋쩍기도 하지만 같이 고생하는 선.후배 동료들을 대신해 정치부 생활을 가감없이 전달하고자 한다.

정 기자의 하루는 바쁘다. 물론 이는 비단 정 기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부 데스크부터 말진까지 눈코뜰새 없이 일에 매진하고 기사를 서비스해야 한다. 아침 7시께 출근해 우선 하는 일은 주요 당직자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일. 전화 취재는 그날의 현안 등에 따라 핵심 정치인들의 반응과 향후 계획 등을 따내는게 핵심이다. 이어 기사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이에 따라 여야 각 정당팀원들이 보충 취재를 하고 기사작성에 들어간다. 후배들은 주로 팩트 취재, 선배는 기사작성 등으로 크게 역할을 분담해 작업이 이뤄지고 철저하게 각자의 역할이 분담되는 팀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기를 바랬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이다. 한숨을 돌

려 석간을 마감했다 하더라도 돌발상황이 터지면 머리가 아파진다.

사회 전반의 모든 주요 현안이 정치권의 현안으로 곧 직결되기 때문에 정 기자도 이를 피해갈 수 없는 것. 여야 반응부터 여야 해법 시각차, 정부.여당의 대책논의 등 모든 것이 기사화될 수 있다.

가끔 주요 정치인들이 누구랑 같이 밥을 먹었고, 슬그머니 모여 쑥덕쑥덕하는 것도 주요한 취재거리. 이런 일정들은 주로 ‘밤에만 이뤄지는데’, 이 경우 정치자의 ‘밤일’도 화려하게 시작된다. 정치자를 포함한 다른 팀원들이 함께 참석자들을 나눠 맡아 전화를 돌리고 취재한 내용들을 취합하는 것.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 1단 짜리 기사라도 세상에 빛을 보게 된다.

이렇듯 주야로 취재하다보니 정 기자도 정치부 생활에서만 얻을 수 있는 성과에 대해서는 가끔 자부심을 갖기도 한다. 출입처에 매몰돼 시각이 협소해지는데서 벗어나 사회현상을 전반적으로 조망하는 안목을 키울 수 있고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한 현안의 핵심을 읽어내 이를 기사로 정리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세상이 많이도 변해 이제는 정치권이 사회

전반을 주무르는 시대가 지났고 특히 경제계는 고유의 시

스템에 따라 움직이면서 정치인들의 ‘헛발질’을 비웃는 시대가 됐다고 하지만 정치부는 그래도 바쁘다. 사회가 복잡다기해지면서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도 많아지고 이 모든 것이 정치부의 현안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정 기자가 뉴스를 보면서 정치부를 비켜가는 유일한 현안 한 가지가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주5일제를 안 지키는 공무원엔 대통령과 총리 뿐이라고 누군가 농담처럼 얘기했듯이 정치권 언저리에서 일하는 정 기자와 정치부 선.후배들도 주5일제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이 우선인 만큼 충실한 기사제공이 전제되지 않은 휴식보장에 대해서는 정 기자도 감히 말을 꺼낼 수가 없지만 ‘정치부 탈출만이 삶의 질 향상’이라는 말은 정치자를 더욱 우울하게 한다. 당장 적용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마음의 여유가 없는 정치부원보다는 넉넉한 웃음을 가진 정치부원이 많아지기를 정 기자는 오늘도 기대한다. ■



정윤섭 정치부

조합가입을 앞두고

노조는 또하나의 안식처가 될 듯...

연합뉴스는 나의 첫 직장은 아니다. 첫 회사에서 '뭔가 이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직을 고민하던 중 아예 직종을 바꿔 기자직에 도전해보겠다고 마음먹었다. 기자라고 해서 더 많은 이윤, 쉽게 말해 월급을 받아 소비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회사원의 삶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겠지만 무언가 '플러스알파'가 있을 것 같았다.



조성미 사회부

수습생활이 끝날 무렵 부서 배치를 받아 내 이름 석자가 뚜렷이 달린 기사를 하나 둘 써내고 있는 요즘, 내 그런 예상이 빚나가지 않았음을 느끼고 안도와 행복을 느낀다.

그러나 내가 예상한 플러스 알파 '세상 돌아가는 걸 직접 보고 그 흐름이 바른 길로 통하도록 애쓸 수 있음'은 녹록찮은 고민과 책임을 요구한다.

며칠 되지 않았지만 내 기사 한 줄에 크고 작은 반향이 이는 것을 보면서 솔직히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나라는 어리석고 작은 인간에게 너무 큰 권한이 주어진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든다.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면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른 이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어떤 조언을 주는지 살펴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제는 노조를 나의 구원처 내지는 도움처로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어떻게 기사 한줄을 써야할지'에서 시작해 '어떤 기자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드러내놓고 혹은 드러내지 않고 노조 선배들과 상의할 것이다. 선.후배 기자로 엮인 관계는 물론 노조원으로서 같은 고민을 안고 가는 관계가 구조요청에서 더 쉬울 것 같다.

노조가입은 '책임'을 지게된다는 것...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26기 박성진입니다.



박성진 부산지사

내려온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벌써 이곳의 생활에 익숙해져서인지 서울에서의 생활이 아주 오래 전 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이 서울과 부산의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먼 곳의 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역 신문인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기자를 중앙지 기자들보다 더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참에 '노조가입을 앞두고'라는 글을 써보라는 노조 선배의 전화를 받고는 처음에 무슨 내용으로 글을 써야하나 난감했습니다.

여기 부산지사에 있는 구성원이라야 지사장님 아래로 10여명 남짓해서 노조니 사측이니 하는 단어가 너무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아직 회사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기사 쓰는 것을 배우느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 가입하게 될 7월 1일이 26기가 수습 꼬리표를 때는 날과 겹친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1월에 입사해 만 6개월 만입니다. 수습일 때 제일 원했던 일 중의 하나가 노조가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조에 가입한다는 것은 회사식구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수습 때 노조 선배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수습은 정규사원이 아니라 원한다고 해도 노조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제게 이제 정식으로 연합뉴스 노조원이 된다는 것은 제가 이제 제 이름을 걸고 기사를 쓰는 한 명의 기자로서 회사와 사회에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탈수습과 노조가입으로 연합뉴스의 진정한 구성원이 돼 무엇보다 기쁩니다.

연합뉴스 선배들이 세워놓은 훌륭한 전통을 잇는 후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도 앞으로 좀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달의 조합활동

●5월 31일 : 정재용위원장은 세계신문협회 총회 개최식에 맞춰 언론노조.언론개혁시민연대.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공동주최로 코엑스 앞에서 열린 신문협회 해체 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에 참석.. 집회에 참석한 정위원장은 "항상 구호의 내용을 취재만하다 직접 구호를 외치며 취재의 대상이 되니 위원장의 자리가 더욱 책임감 있게 느껴진다"고 한마디..

●6월 1일 : 정위원장에 이어 도광환사무국장과 이충원 조직부장이 코엑스앞에서 열린 신문협회 해체 촉구 거리행진에 참석..

●6월 2일 : 임금피크제 2차 실무협약에서 노사간 이견이 노출됨. 노사는 노조 워크숍 이후 협상을 속개하기로 하고 실무협상을 잠정중단..

●6월 2일 : 정위원장과 최태용 부위원장, 도사무국장은 대전지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 KTX 개통과 행정복합도시 건설 등에 따라 상대적 비중이 높아질 대전지사의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6월 10일~11일 : 노조는 경기도 양평 대명콘도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집행부 워크숍을 열어 뉴스통신진흥회, 임금피크제 문제에 대해 집중논의.. 이어 경영기획실 김태한 사우로부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발제내용을 듣고 <뉴미디어 시장 변화와 연합뉴스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2시간여에 걸쳐 열린 토론회.. 한 집행부원은 "연합뉴스도 미디어시장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낙오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토론했다..

●6월 13일 : 정위원장과 도사무국장은 사내에서 만나기 어려운 사회부 법조팀을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으로 방문해 점심식사를 하며 여러 의견을 청취..

●6월 15일 : 한나라당의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후보 추천 등 진흥회 이사 추천 주체들의 활발한 움직임에 맞춰 노조 명의의 공식성명을 발표.. 성명의 골자는 "사심 없이 통신발전을 위해 노력할 인사들을 이사로 추천해 달라"는 것..

●6월 20일 : 집행부회의를 열어 뉴스통신진흥회, 임금피크제, 노조 홈페이지 개선안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6월 20일 : 정위원장과 도사무국장은 7월중 각 지역으로 부임되는 특파원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특파원제도의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

●6월 21일 : 노조는 삼성 SDS직원등과 함께 게시판 활성화, 디자인 혁신 등 노조 홈페이지 개선안 시안에 대해 토론했다..

●6월 22일~23일 : 정위원장과 김호천 부위원장, 도사무국장이 전주지사를 방문, 간담회.. 전주지사 조합원들은 흥인철 대의원과 임청 사우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견 개진을 한데 이어 뒷풀이에서 뛰어난 노래솜씨를 선보인 '예향 전주'임을 실감케 하기도..



●6월 27일 : 집행부회의를 열어 각 대의원을 통해 수렴된 임금피크제에 대한 사우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설문조사 실시 계획 등 향후 대응방안을 집중 토론했다..